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0(土)	1(日)
차차 흐려짐 21 / 31℃	흐리고 비 22 / 25℃

- News**
- 3대 쟁점법안 전격 타결 ②
 - 두 금속노조의 엇갈린 파업 ③

- Jeollado**
- 그사람-정시제 前농림장관 ⑦



- Entertainment**
- '꽃미남' 윤은혜 ⑧
 - 로봇 영화 '트랜스 포머'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참쌀 ⑬



- Trend & Style**
- '딸·딸'이 아빠만세 ⑭

유형별 장학금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사회참여실천 산악인 모임 '푸른산'



지난달 20일 무등산 서석대에 올라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사회참여실천을 위한 산악인 모임 '푸른산' 회원들. <푸른산 제공>

'나눔의 봉사' 나선 클라이머들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암등자를 3명이나 배출한 산악강국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 산악인들은 최근 10여년동안 해외 등반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한계 상황과 불확실성을 극복해낸 산악인들의 의지는 일반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곤 했다. 반면 '산에 미쳐 살았다' 그들의 등반행태는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역사회와 괴리도 컸다.

광주·전남 30대 젊은 산악인 36명이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를 선언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근 발족한 '사회참여실천을 위한 산악인 모임, 푸른산' 회원들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산악운동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공익을 위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 6개월여 준비 끝에 모임을 탄생시킨 문종국(38·유달학영아영장) 회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우선 불우 청소년을 위한 무료 캠프 운영과 환경보호, 소

외계층 봉사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월출산국립공원에 소년소녀가장 및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야영학교'를 개설, 청소년들과 고민을 나누고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계획이다. 회원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캠프 개설에 앞서 지난 27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지역산악인들을 초청,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과 바자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환경생태캠프, 웰빙지킴이 등 다양한 특성화캠프를 잇따라 개설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대할 계획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화활동과 교육 등 '푸른산 캠페인'도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무등산에 이어 다음달에는 월출산 정화활동에 나선다. 이정현(38) 환경분과위원장은 "야영학교를 수료한 청소년들도 캠페인에 참여시켜 환경보호 교육을 통한 멘토링(mentoring)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은 해외원정 1회 이상, 전문등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알파리스트들로 구성됐다. 문 회장은 파키스탄 트라코 네임리스타워 등을 등정한 거벽등반 전문가고, 이 위원장은 K2 등 히말라야 8,000m급 3개 봉 정상에 올랐다. 그동안 지역민들과 선·후배 산악인의 성원에 힘입어 등반에 몰입할 수 있었던 회원들은 이제 '지역공동체와 나눔'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장을 던졌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소외계층의 여가·레저 및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입을 모으는 회원들의 표정은 여름 산의 녹음 보다 더 푸르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전남 산악인 36명 참여 불우 청소년·환경 캠프 개설 정화 활동 등 '푸른산 캠페인'

韓·美 FTA 추가협상 타결

노동·환경 의무 위반 제재하되 남용 방지키로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노동·환경 분야에서 무역보복 등이 가능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투자 영향 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미국시간)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식은 미 하원 부속건물인 캐년빌딩에서 열리고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측의 통상장관이 서명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가협상 최종 타결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서명식이 끝나면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이 수정 제의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우리 측도 미국 측으로부터 의회에 권한이 있는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미국이 요구한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 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환경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측의 제의대로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거나 벌과금을 상대국에 부과 하는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은 노동·환경 분야에 있어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며, 무역·투자 임종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이 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고 양국의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안에 관한 협정 관련 조항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부시 곧 한국 비자면제 검토 성명"

한편 미국 행정부는 조만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조속한 시일 안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VWP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VWP 가입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자 수녀들의 웃음폭탄 오늘, 내일 터집니다

'넌센스 크래커' 광주 공연

- 일시 : 2007년 6월30일(토) 오후 4시, 7시30분 2007년 7월 1일(일) 오후 3시, 6시30분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예매 : www.ticketmaru.co.kr
- 문의 : (062)220-0541, 1588-0766

광주일보 (주)공연마루 전남대학교

www.kwangju.go.kr

청계공원을 추천합니다

청계공원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의: 062-220-1100

1. 토남지역 최고의 상도지봉 무한한 가치보장!

2. 토남지역의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3. 1년 309일 연차제도 현상임사 포함!

시행사: (주)다리종합개발 (주)다리종합개발 (주)다리종합개발